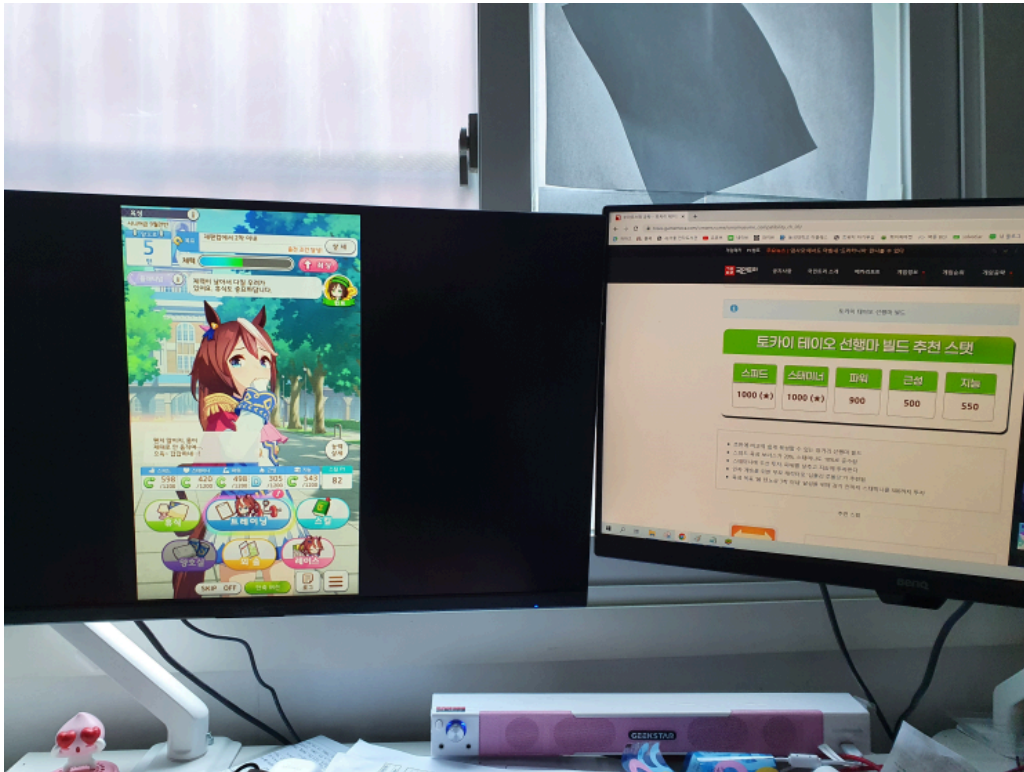


2022.06.27 - 2022.07.03

이번 주는 열심히 게임하고 먹고 자기만 했다. 특히 6월 30일부터...



6월 30일 새벽에 우마무스에 설치한 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이 됐다. 제대로 빠져서 하는 중. 나중에 관련해서 글 쓰려고 이것저것 모아두고는 있는데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.

(우마무스메를 포함한) 이런저런 이유로 열흘 정도 생활패턴이 박살나 있었는데, 오늘 새벽까지 술 마신 덕분에(?) 고쳐졌다. 아침 햇빛 쨍쨍할 때 일어나는 게 어찌나 반갑던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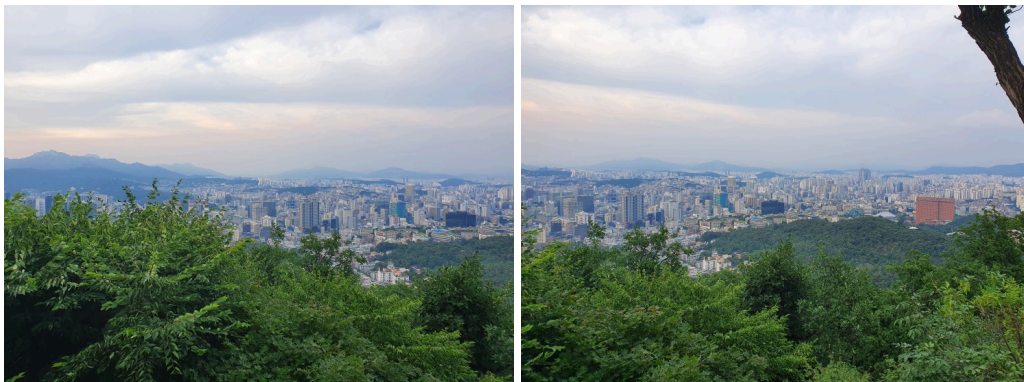
오늘은 친구들이랑 남산에 다녀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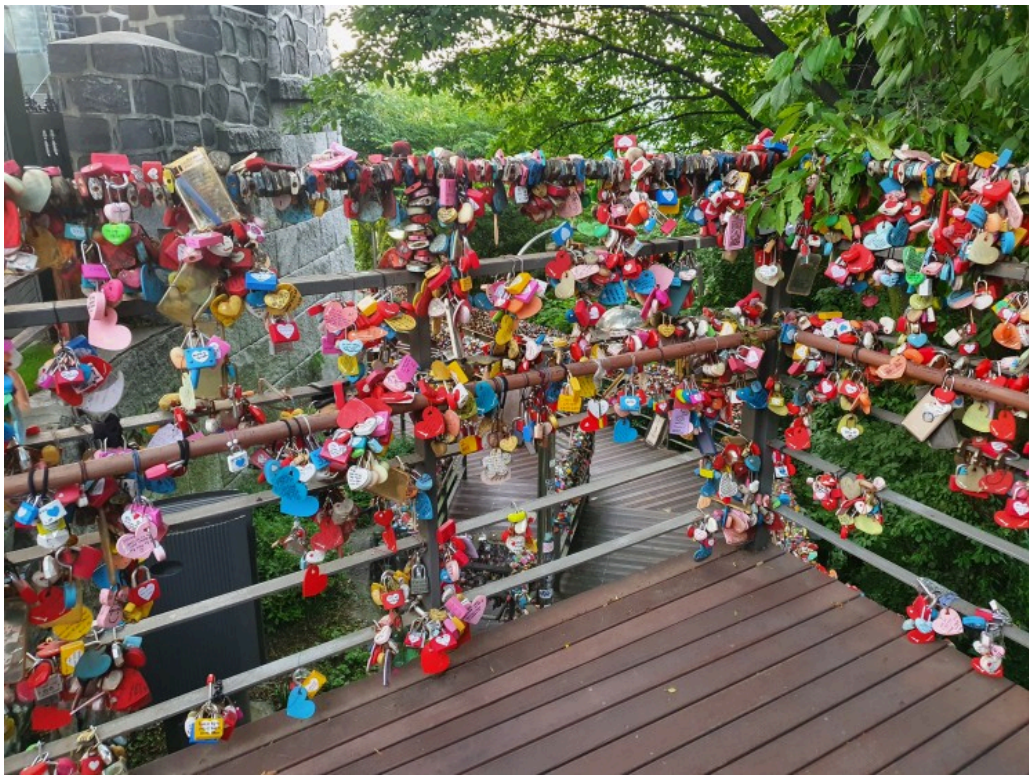
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목멱산방 가서 밥 먹었다.
웨이팅이 없어서 좋았는데, 음료는 매진돼서 못 마셨다. 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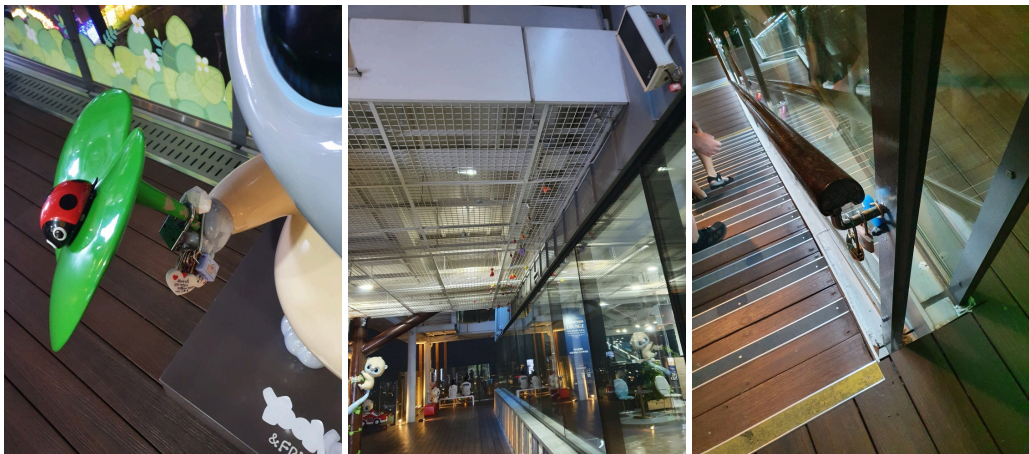
버스타고 남산 가보기는 처음이었다.



남산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후 찍은 전경. 장충 체육관과 신라 호텔이 눈에 띈다.



오랜만에 보는 자물쇠들.



진짜 별의별 곳에 다 있다.



디지털 망원경이 있었다. 이걸 카드 결제도 된다. 나에게 익숙한 동전 결제 되는 망원경은 이 녀석 옆에 있었다.



기념품점에서 오버액션 토끼 랜덤박스 보고 끌려서 샀다. 목표는 모자 쓰고 마라카스 든 토끼.
근데 DEFFERENT 아니고 DIFFERENT 아닌가? 정품 같긴 한데 왜 오타가...



결과는 썩. 그래도 나름 귀여운 녀석이 나왔다. 등 뒤에



무시무시한 당근을 숨기고 있다.



돌아가는 길 버스. 요즘 버스는 버스에서 충전도 가능한가보다.



잘 하자 토끼야!